출토 유물로 되살아난 사찰역사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출토유물로 되살린 강원지역 사찰의 역사'
월정사성보박물관 10월 7일~12월 31일

월정사 등 강원 남부지역 6개 사찰 관련
발굴조사 출토 유물 · 자료 100여 점 전시
흥녕선원지서 발굴 금동반가사유상 관심






① 흥녕선원지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② 월정사출토 양녕,효령대군명 암막새(1446년) ③ 월정사 출토 소조불좌상(10세기말~11세기) ④정암사 출토 '교율정암강(敎律淨巖講)' 명 명문와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해운)은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층 기획실에서 특별전 '출토유물로 되살린 강원지역 사찰의 역사'를 개최한다. 2022년 박물관 문화관광 지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대산 월정사를 비롯하여 영감사 오대산사고지, 영월 법흥사 흥녕선원지, 보덕사, 정선 정암사, 강릉 보현사 등 강원도 남부지역 6개 사찰을 소개하며 그동안 정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자료 1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사찰의 역사를 알려주는 여러 명문 기와와 연꽃, 용, 봉황 문양으로 장식한 다양한 막새기와, 당시 사찰에서 쓰였던 도자기편과 금속유물 등이 전시된다.

특히 2017년 영월 법흥사 흥녕선원지 발굴조사 때 출토된 금동반가사유상은 크게 주목받는 유물이다. 높이 15cm, 폭 5cm 크기의 소형으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뺨에 살짝 댄 채 명상에 잠긴 모습으로, 삼국시대(7세기)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반가사유상의 모습이다. 국내에서 출처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사례이며 작지만 조형적으로 자연스러운 표현과 높은 완성도를 갖춘 수작으로서 삼국시대 불교문화의 위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흥녕선원(興寧禪院)은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전해지며, 선종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파의 본거지로, 통일 신라 시대 징효대사(826~900)에 의해 크게 번창한 사찰이다. 흥녕사는 891년 소실된 후 943년 중창했으나 계속되는 전란으로 사세가 기울어 오랜 시간 명맥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2년부터 진행된 발굴조사는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현재는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인 법흥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법흥사에는 징효대사 탑비(보물 제612호)와 부도 등이 남아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643년 자장 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성지로서 오랜 시간 번창했던 오대산 월정사의 역사를 밝혀주는 여러 명문 기와를 만나볼 수 있다. 그 중 '양녕 · 효령대군' 명 암막새는 1446년 월정사 중건 당시 세자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참여했음을 알려주며 조선 왕실과 오대산 월정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월정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의 위상을 확립하고, 동국대학교 건립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암자들이 전소될 때 월정사 역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화엄학의 대가이며 불교경전은 물론 동양사상 전반을 아우른 탄허 스님이 주석하면서 사격을 회복했다. 현재 월정사는 명상마을과 성보박물관 등을 전통사찰의 영역 밖에 새롭게 조성하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킨 주역으로 기억되고 있다.

강릉 보현사에서 출토된 금동제 풍탁 역시 주목할 만한 유물이다. 풍탁은 사찰의 처마 끝에 매다는 작은 종으로, 풍경 또는 풍령이라고 불리며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함께 전래한 것으로 추정한다. 10세기경 제작된 보현사 풍탁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고려 초기 금속공예의 아름다움과 보현사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보현사는 보현보살이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하는 사찰이다. 650년(진덕여왕 4년)에 자장 율사에 의해 창건됐다. 889년 낭원대사에 의해 지장선원이란 이름으로 중창되면서 크게 번창했다. 낭원대사는 사굴산문의 개산조인 범일 국사의 법맥을 이었다.

보현사에는 대웅보전(강원도 문화재자료 제 37호), 삼성각, 영산전이 전해오고 있으며 대웅보전 내에 모셔진 아미타삼존불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원만상으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친근한 상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참배객이 이어지고 있다. 소장 문화재로는 940년에 세워진 낭원대사탑(보물 제191호), 낭원대사탑비(보물 제192호), 목조보살좌상(보현보살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보현사 십육나한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보현사 대웅보전(강원도 유형문화재), 보현사 소조보살좌상(강원도 문화재자료), 보현사 부도군(강원도 문화재자료) 등이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란과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잊힌 사찰의 역사를 확인해보고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남종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울 연' 展
〈蓮〉


남종현 作 겨울연

조계사 경내 10월 18~27일
모노톤의 겨울 연 사진 15점

사진작가 남종현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겨울 연(蓮)' 展을 개최한다. 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에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에 게재했던 겨울 연 사진 15점을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조계사 앞마당에서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연은 겨울을 배경으로 한 모노톤의 연이다.

남 작가의 겨울 연 작품은 우리 전통 한지에 사진을 인화해 연의 소박하면서도 담백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보인다. 오랫동안 광고사진을 찍어왔던 남 작가는 생산하는 사진이 아닌 기록하고 새기는 사진으로 돌아가고자 광고사진 작업을 접고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가 만난 새로운 주제는 눈과 연꽃이었다. 카메라를 통해 동양화를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 그의 작품은 오랜 여운을 남긴다. 남 작가는 여백을 통해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을 동시에 표현한다. 빈 공간에 가득 찬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사물이 아니라 주변의 빈 공간을 찍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의 작업은 피사체마다 다른 인화지와 다른 인화방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진과 그림의 경계를 오가는 남 작가의 작품이 주는 느낌을 화면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남 작가는 연 작품을 조계사에 보시해 판매 수익금 일체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으로 보시한다. 문의 010-2684-6041.

박재완 기자

제 8회 돌샘 작품전


하경진 作, 석가모니 후불탱 140X158 면본석채

불화장 석정물모 10주기 맞아
경주 황룡원 10월 21 ~ 30일

불화장 석정 스님의 맥을 잇고 있는 돌샘이 석정 스님 10주기를 맞아 작품전을 연다.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개최되는 '돌샘 제8회 작품전'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전승교육사 하경진의 공개시연도 함께 열리는 이번 작품전은 하경진(전승교육사), 강다은 등 24명의 돌샘 회원들이 참여해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수많은 불모들이 우리만의 전통 불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시대에 걸 맞는 불화로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는 의겸, 금호, 보응, 일섭, 석정 등 불모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그 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9년 창립전을 열었던 돌샘은 이번 전시에서 그 동안 불화장 이수자와 전수생이 함께 어울려 붓끝 하나하나에 열정을 모아 그려온 작품들을 선보인다.

돌샘은 석정 불모가 우리 불화의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지어준 이름으로, 돌샘의 회원들은 계고창신(繼古創新)을 좌우명으로 불화전수회관 담향산방에서 이 시대에 맞는 불화 전승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佛畵匠) 기능보유자 석정 스님은 1928년 강원도 고성군 신북(외금강)면에서 출생해 1940년 순천 송광사에서 친아버지이자 효봉 스님의 은사인 석두(石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불모 일섭 스님으로부터 불화를 사사하고 그 다음해 인가를 받았다.

박재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